제2회 고분자아카데미 열려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고분자학회(회장 韓萬靖)는 2월15~19일 5일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제2회 고분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고분자합성, 구조와 물성 및 가공분야의 기초지식 전반을 다룬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金重賢교수(연세대)의 「비균일계 종합」 등 20개 강좌가 강의되었다.

한편 동학회는 오는 4월15~16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정기총회 및 연구논문발표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논문발표회에서는 초청특별강연 3편을 비롯 산학연심포지엄 4편, 특별강연 16편 및 연구논문 1백76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2회 수공학워크숍 개최

한국수문학회

한국수문학회(회장 高在雄)는 2월22~23일 양일간 서울동호공업고등학교에서 제2회 수공학워크숍을 개최했다.

OHP 및 슬라이드를 이용한 강의와 토론을 PC/486을 배정하여 견본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실습으로 진행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李舜鐸교수(영남대)가 저수유출관리시스템 분야, 金鐵교수(호남대)와 趙根晩씨(유니시스템코리아 기술연구소)가 GIS와 수문·수자원 관리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다.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집

한국정밀공학회

한국정밀공학회(회장 南宮垣)는 5월21일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개최될 춘계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5월7일까지 접수한다.

계측제어, 정밀가공, 자동차, 생산시스템 등 4개 분야로 나눠 접수하는데 원고작성요령은 동학회 사무국에 비치된 논문작성 원고지 5매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학회 사무국(Tel, 922-65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순도질소 제조장치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소장 吳正茂) 산업공정연구팀의 趙淳行박사연구팀은 최근 대성산소(대표 김영대)의 초저온연구소와 공동으로 99.99% 이상의 고순도 질소를 저렴하게 제조하는 'PSA 질소 제조장치'를 개발, 실용화 설계기술을 확립하고 올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실용화된 이 기술은 현재 국내특허 출원중에 있다.

지난 92년 상공자원부의 에너지절약과제로 선정되어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로부터 정부지원금과 기업체 부담금 등 총 4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의 심냉법에 의해 제조된 액체질소를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보다 약 60%의 에너지를 절감효과를 가져와 각종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품질 관련 강좌 개최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회장 朴秉瑢)는 2월21~24일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회의실에서 이틀씩 2회에 걸쳐 시멘트·콘크리트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강좌를 개최했다.

3백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기술강좌에서는 朴承範교수(충남대)의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방법」을 비롯 韓千求교수(청주대)의 「콘크리트 배합설계, 혼합, 양생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성시험」 등 9편의 강좌가 있었다.

차기회장에 金大植교수 선출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회장 鄭玩鎬)는 2월23~24일 양일간 서울과학교육원에서 동계세미나 및 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동학회는 이날 이번 학술행사와 함께 총회를 열고 차기회장으로 충북대 과학교육과 金大植교수를 선출했다.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金교수는 내년부터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과학교육에서의 컴퓨터 이용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許雲那교수(한양대)의 「교육매체로서의 컴퓨터」에 관한 발제강연과 張世中교수(교원대)의 「과학실험과 컴퓨터의 이용」 등 3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편 24일 열린 논문발표회에서는 김경호박사(교육개발원)의 「고등학교 유전학습에 효과적인 교수순서와 교수방법」 등 2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신임회장에 尹鍾和교수 선출

한국임학회

한국임학회(회장 尹鍾和)는 2월24~25일 양일간 「2천년대 한국임업을 위한 대토론회」와 정기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를 세종문화회관과 임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했다.

3백50여명이 참가한 대토론회에서는 邊雨麟교수(고려대)의 「한국임업의 나아갈 방향」을 비롯 李龍水씨(한국일보 편집위원)의 「산림경영과 환경문제」와 朴良浩씨(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산지이용과 국토종합개발」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함께 푸는 미스터리 〈Ⅳ〉해답

비디오테이프 미스터리

유경감이 녹화기의 단추를 누르고 테이프를 다시 상연하기 시작할 때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오." 라고 말하면서 최교수는 입을 열었다. "우선 각자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장면과 장남 천일룡씨가 필름을 촬영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벽에 걸린 거울에서 볼 수 있지요.

자아, 이제 오주방장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쟁반에 무엇이 담겼는지 실제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오. 이때 카메라의 초점은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클로즈업하는 한편 주방장이 각자 앞에 찬 샴페인글라스를 놓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다시 서 있는 3남 천삼룡씨에게 주방장이 샴페인병을 건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최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천삼룡씨가 샴페인을 부으려고 할 때 그의 부인 박동숙씨가 자기의 술잔과 천금석씨의 술잔을 바꿔치기하는 클로즈업장면을 유의해 보시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교수는 유경감을 쳐다본 뒤 말을 이었다.

"자, 이제부터 천금석씨가 어떻게 살해되었는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천삼룡씨는 주방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술병에서 천금석씨 술잔에 술을 따릅니다. 다음 클로즈업장면은 천삼룡씨가 아버지 천금석씨의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의 처 박동숙씨가 시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천삼룡씨가 천금석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그가 주방장과 병을 바꿔치기하는 것을 우리나 천금석씨는 볼 수 없어요. 천삼룡씨는 새 술병으로 맏며느리 이금자씨의 술잔에 술을 따른 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 술병을 주방장에게 건네줍니다. 천금석씨가 독이 든 술잔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술을 든 뒤 주방장은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첫번째 술병을 가지고 방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천금석씨를 독살한 것은 주방장과 천삼룡씨라는 말씀입니까?" 유경감이 물었다.

"유경감은 한가지 잊은 것이 있군요."최교수는 말을 이었다.

"셋째며느리 박동숙씨,2남 천이룡 그리고 그의 부인 김은혜씨는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술병을 바꿔치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금석씨는 셋째며느리 박동숙씨가 그의 주의를 따돌렸기 때문에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장남 천일룡씨는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우리가 본 것 외에는 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바꿔치기는 맏며느리 이금자씨 등 뒤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광경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경감은 눈살을 찌푸렸다.

최교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장남 천일룡씨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음모에 끼어들었오. 이들이 청산가리를 택한 것은 아마도 맏며느리 이금자씨가 이 살인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었던 것 같소. 청산가리를 이금자씨의 가게에서 훔쳤을지도 모르지요. 이들은 또 그의 남편의 촬영기술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음모를 꾸민 이유는 천금석씨가 유언장을 변경하는 것을 막자는 데서 나왔어요."

유경감이 오주방장을 살인죄로 입건하고 취조에 들어가자 그는 자백하면서 다른 연루자들의 이름도 불었다. 이들은 최교수가 추리하던 대로 음모를 꾸몄었다. 천삼룡씨 부부와 천이룡씨 부부도 기소되어 재판을 대기중이다. ST